

제9장

노후와 연금



목차

1. 고령화 사회

2.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3. 노후준비

개요

급속히 진행되는 노령화와 이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살펴보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에 대해 살펴본다.

-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발생하는 노후의 위험을 설명할 수 있다.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세제혜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고령사회의 덫, 가족 붕괴시키는 ‘치매간병살인’



-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이러한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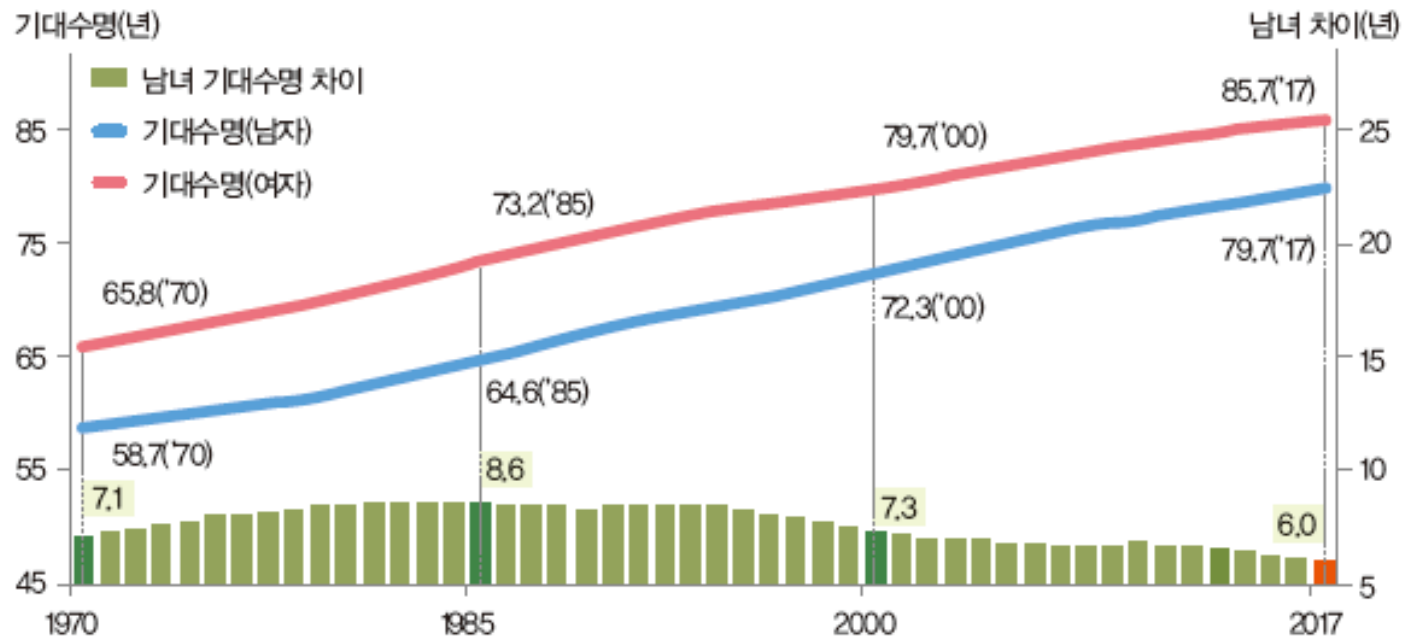
1

고령화 사회

1.1 기대수명

- 기대수명: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기대여명: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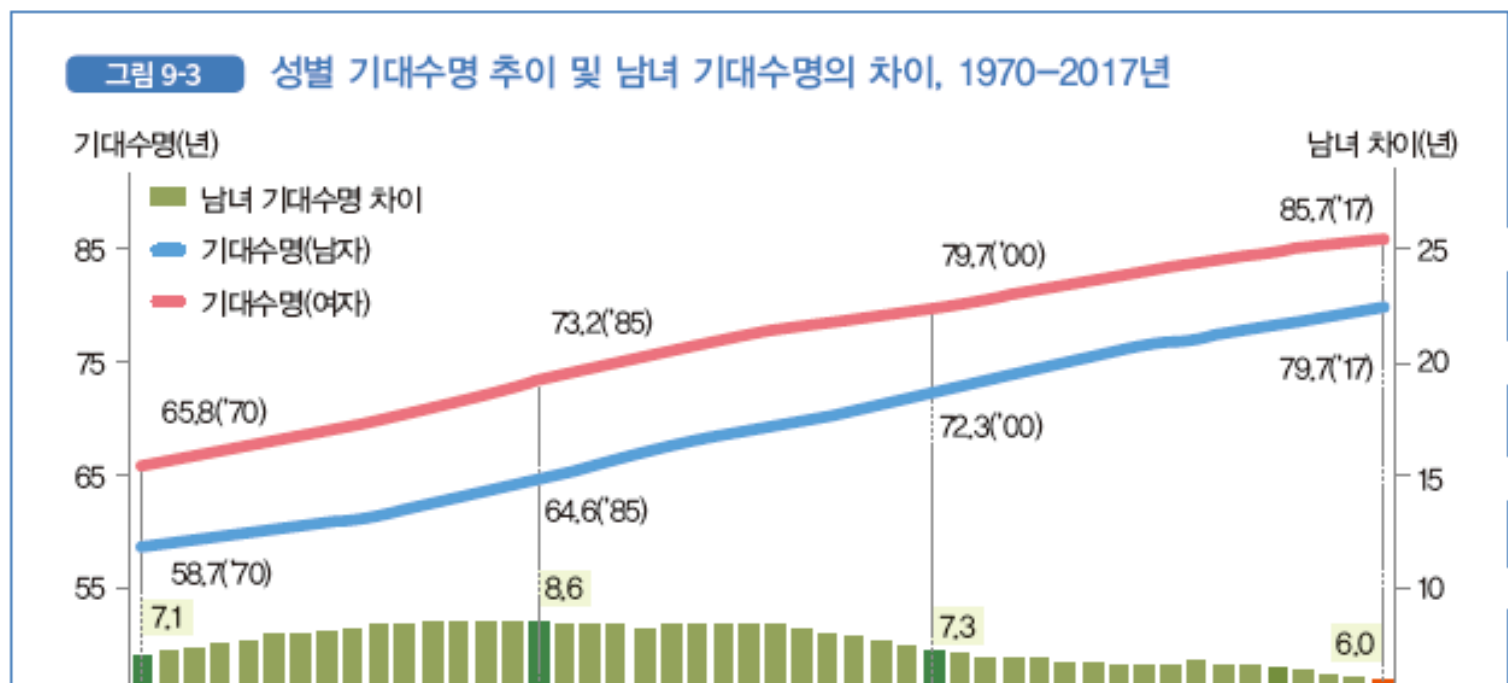
그림 9-3 성별 기대수명 추이 및 남녀 기대수명의 차이, 1970-2017년



자료 : 통계청, 2017년 생명표, 2018년 12월 3일자 보도자료

1.1 기대수명

- 기대수명: 특정 연도의 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기대여명: 특정 연도에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6~7년 기대수명이 더 길다!**

1.2 건강수명과 행복수명

건강수명

= 평균수명 -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

행복수명

건강수명

경제수명

활동수명

관계수명

1.3 고령사회의 그늘

■ 67세 여성은 할머니일까?



고두심 탤런트, 영화배우

출생 제주특별자치도

신체 160cm

가족 슬하 1남 1녀

학력 **제주여자고등학교**

데뷔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

수상 2015년 KBS 연기대상 대상

경력 2012.06 탐라대전 홍보대사



올리비아 핫세 (Olivia Hussey | Olivia Osuna) 영화배우

출생 아르헨티나

신체 164cm

가족 배우자 **데이비드 아이슬리**, 아들 **알렉산더 마틴**, 딸 **인디아 아이슬리**, 아들 맥스

데뷔 1964년 TV 영화 'The Crunch'

수상 1969년 골든글로브 시상식 여자신인상

1.3 고령사회의 그늘

■ 67세 여성은 할머니일까?



고두심 탤런트, 영화배우

출생 1951년 5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

신체 160cm

가족 슬하 1남 1녀

학력 **제주여자고등학교**

데뷔 1972년 MBC 5기 공채 탤런트

수상 2015년 KBS 연기대상 대상

경력 2012.06 탐라대전 홍보대사

**65세 기준에서 2년 또는 4년마다
1세씩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검토**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16~2020))

1.3 고령사회의 그늘

■ 고령사회 일본에서 간병 살인, 자살 비극으로 4년간 189명 사망

살인 가해·피해·자살 179건...70세이상 부부간 사건 40% 넘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령사회 일본에서 최근 4년여간 간병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하거나 살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사건이 17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 발표와 법원 판결, 연구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사건을 집계한 결과 이런 사건 179건이 벌어져 189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보도했다.

▲ 출처: 연합뉴스 2016.12.05, 김정선 특파원

1.3 고령사회의 그늘

- 고령사회 일본에서 간병 살인, 자살 비극으로 4년간 189명 사망

살인 가해·피해·자살 179건...70세이상 부부간 사건 40% 넘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고령사회 일본에서 최근 4년여간 간병을 받는 60세 이상 노인이 자살하거나 살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된 사건이 17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의 자살, 노인학대,
노-노(老-老)학대 등의 문제 발생**



2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2. 노후에 발생하는 위험

■ 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3가지?

소년
급제



중년
상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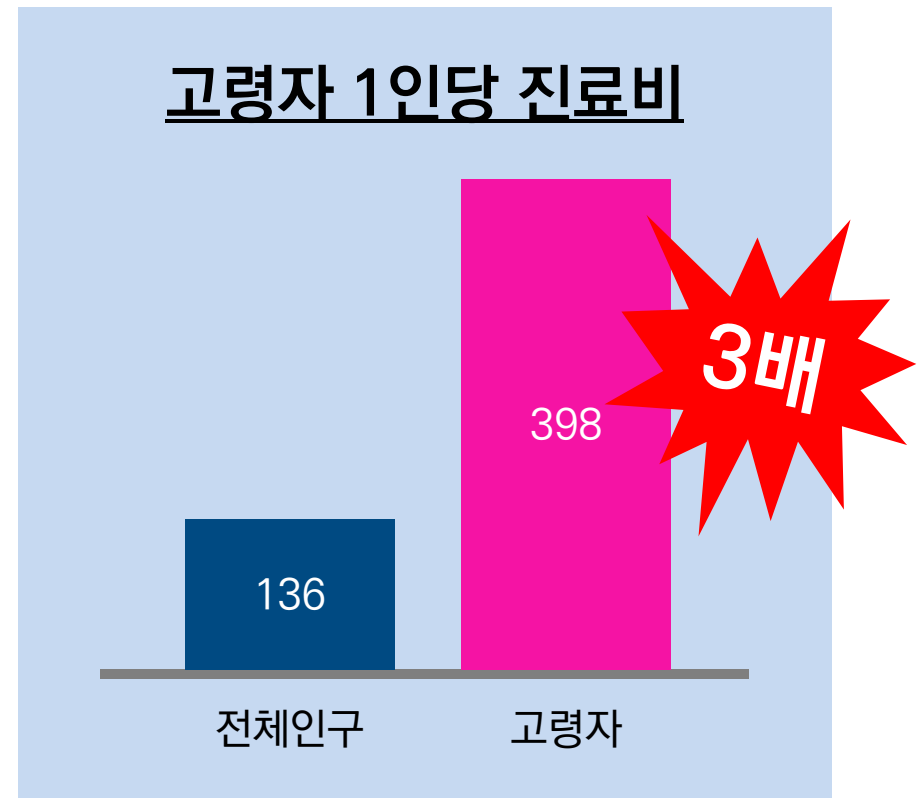
노년
빈곤



2.1 질병위험

■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0만명당)

1. 암 (784명)
2. 심장질환 (361명)
3. 뇌혈관 질환 (269명)
4. 폐렴 (258명)



▲ 출처: 통계청, 2018 고령화 통계

2.1 질병위험

■ 주요 질병의 65세 이후 1인당 생애의료비

(단위 : 만원)

구분	생애의료비	
	남성	여성
암	7,167	3,970
심장질환	2,965	3,081
뇌혈관질환	3,918	5,719
치매	1,304	4,334
당뇨병	1,997	2,840
고혈압성 질환	3,332	6,306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2 경제적 위험

■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 매월)



전국 평균
약 176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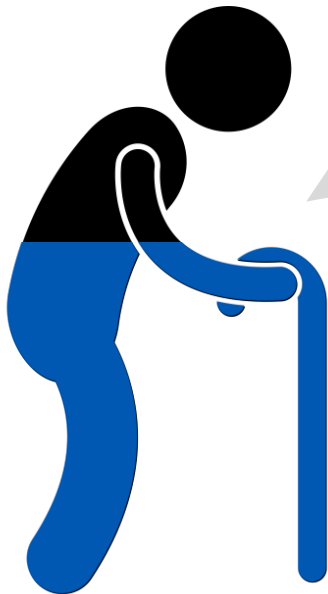


서울 평균
약 199.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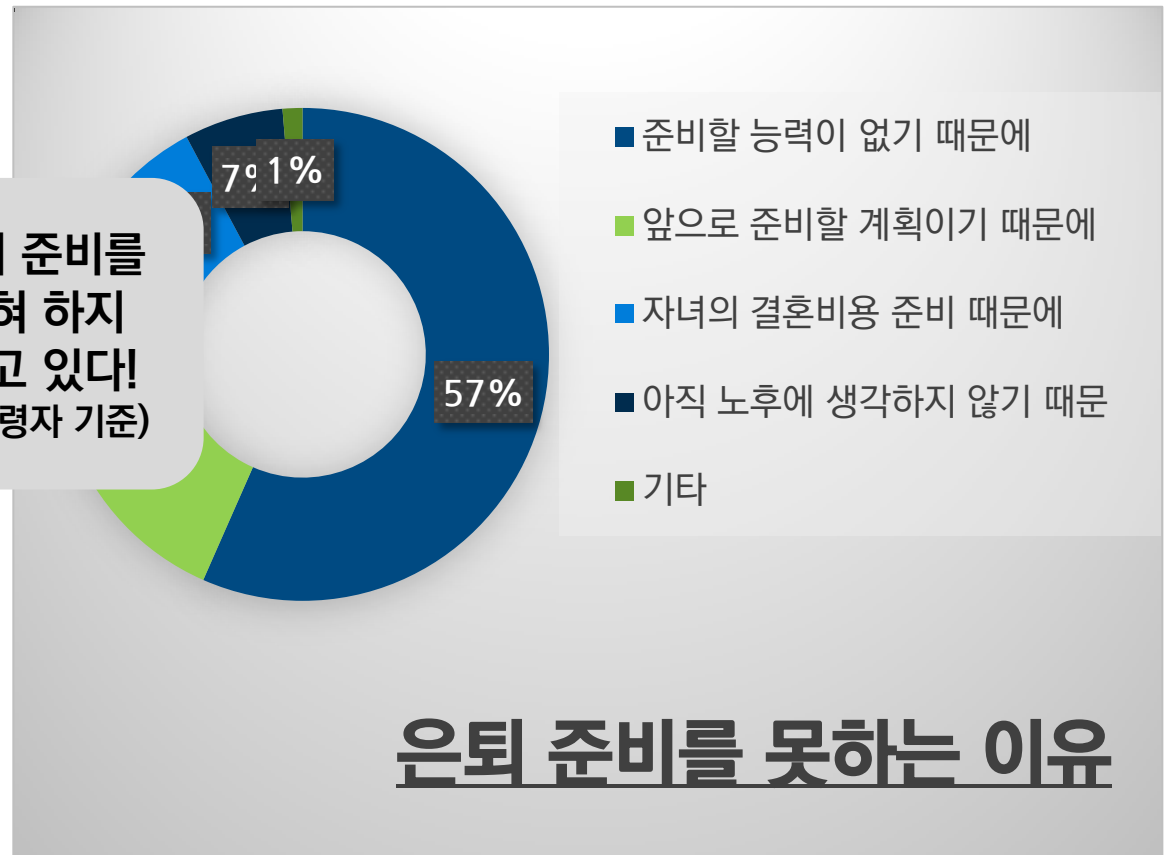
2.2 경제적 위험

■ 은퇴준비

62.9%



은퇴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중고령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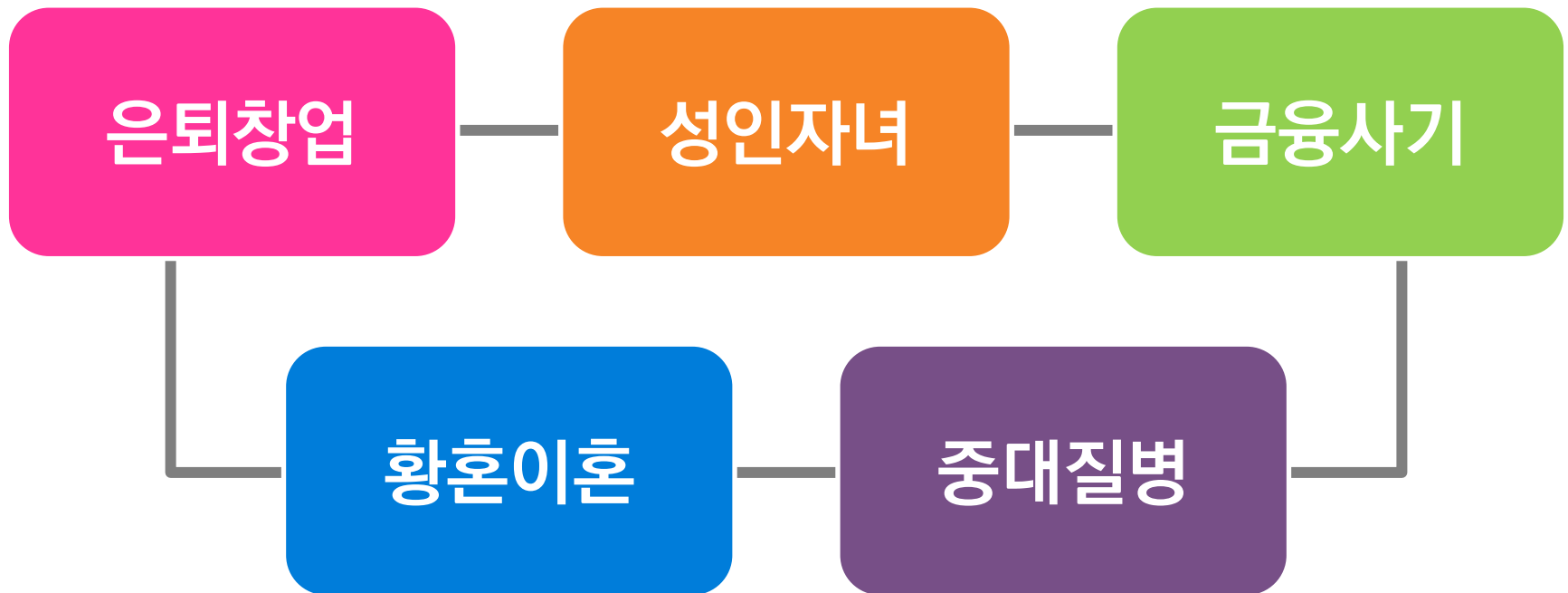
▲ 출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7)

2.3 고독의 위험



2.3 고독의 위험

■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



▲ 출처: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인생후반을 좌우하는 5대 리스크”(2013년) 중 인용



3

노후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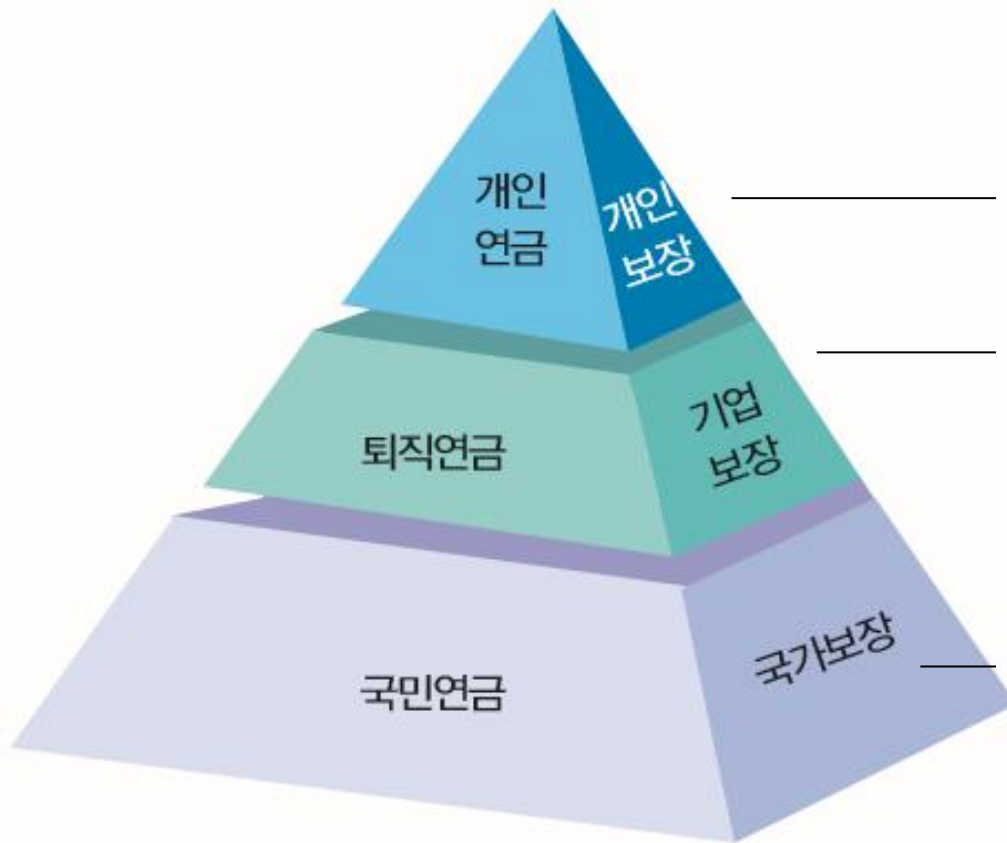
3.1 연금의 활용



**경제활동기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생활비의 형태로 일정액을 나누어 지급**

3.1 연금의 활용

■ 3층 연금체계



-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
-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
-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
(공무원 등은 직역연금)

3.1 연금의 활용

■ 국민연금

-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부터 지급 시작
-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

표 9-3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

출생연도	53년~56년생	57~60년생	61~64년생	65년~68년생	1969년 이후
노령연금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조기노령연금	56세	57세	58세	59세	60세

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

국민연금의 두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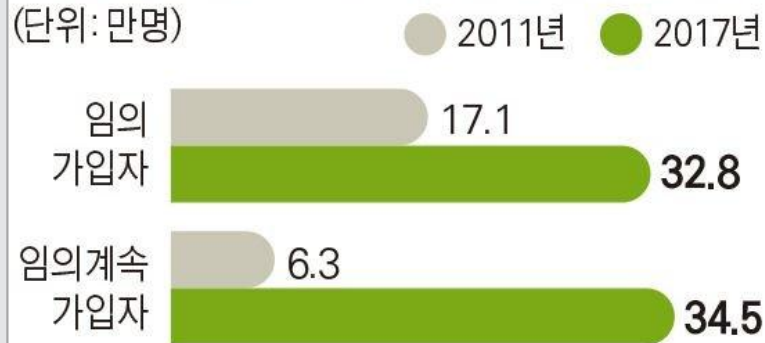
“재테크 효자” vs “애물단지” … 국민연금 두 풍경

서울 구별 인구 대비 임의가입자 비율
(단위: %, 괄호 안은 가입자 수)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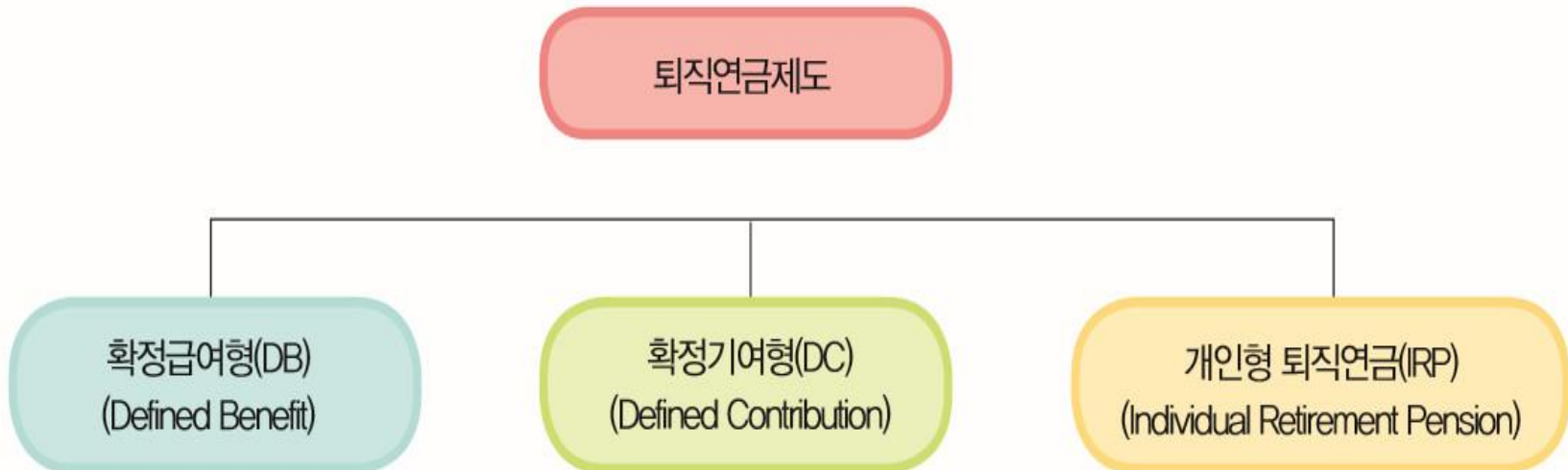
평균 수익비 1.6~2.9배
매년 물가상승률까지 반영
개인연금보다 조건 훨씬 후해

靑 게시판에 탈퇴 청원 글 40개
“쪼들려 보험료 낼 여력 없어요”
전액 부담하는 소상공인 반발 커

3.1 연금의 활용

■ 퇴직연금

기업들이 사내에 자체적으로 충당하던 퇴직금을 회사 외부의 금융 기관에서 적립하고 운용하는 연금제도



3.1 연금의 활용

■ 개인연금

	연금저축	연금보험
상품종류	신탁, 저축성 보험, 펀드	저축성 보험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한도로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일시납) - 5년 이상 나누어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 (납입금 연간 18,00만원 한도내) - 55세 이후부터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 시 <p>보험차익에 비과세</p>

3.1 연금의 활용

■ 기초연금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들을 위해 도입된 연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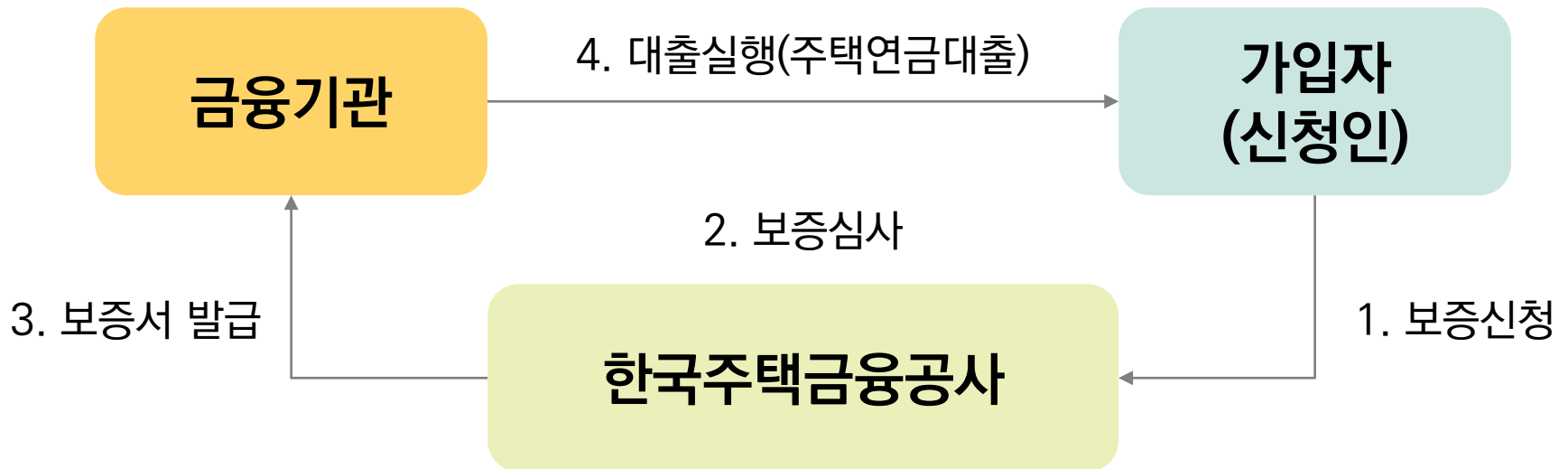
(참고)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 2천원



3.1 연금의 활용

■ 주택연금

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역모기지론 금융상품



3.1 연금의 활용

■ 연금설계

표 9-4 노후자금의 과부족 산출하기

① 은퇴 후 예상 월 생활비	243만 3천원
② 은퇴기간(= 예상사망연령 - 현재연령)	년
③ 필요한 노후자금(①×②×12개월)	원
④ 준비된 노후자금(국민연금 등의 연금액 포함)	원
⑤ 과부족금액	원

출처 : 금융감독원, "노후를 건강하고 따뜻하게", p.21.

- ① 2017년 국민노후보장 패널 조사에 따라 월 평균 필요한 적정 노후 생활비로 부부기준 243만 3천원을 설정
- ② 퇴직 이후의 생존기간을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은퇴 후 필요한 총 금액을 계산
(예를 들어, 60세에 은퇴하는 남성이라면 기대여명을 21년으로 산출하되, 여성 배우자가 단독으로 남게 되는 6~7년을 추가)
- ③ 앞에서 계산한 ①과 ②의 곱에 다시 12를 곱함
- ④ 통합연금포털을 방문하여 현재까지 마련한 연금액 계산
- ⑤ 부족 연금액 산출

3.1 연금의 활용

■ 연금설계 :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1. 기초정보 입력

2. 재무진단 결과

3. 맞춤형 상품정보

출생년월 (예) 195502

퇴직년월 (예) 201802

QUICK MENU

연금저축 설계

재무상담

연금저축 정보

통합연금포털에서 불러오기 ?

직접 입력하기

① 연금 수령정보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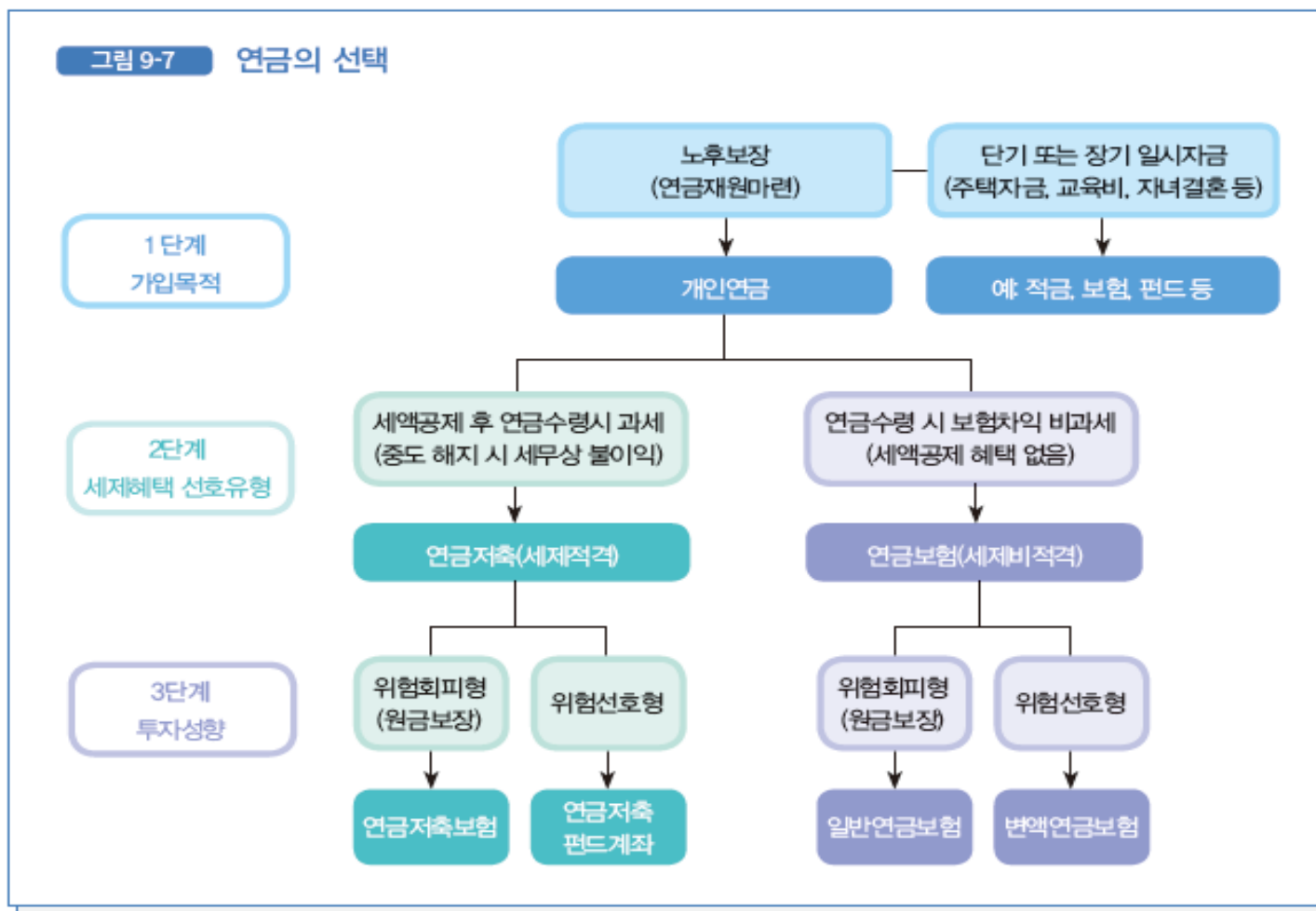
연금 수령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② 연금 수령정보 올리기

①에서 받은 엑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3.1 연금의 활용

■ 연금의 선택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 강OO씨(이하 신청인)는 2012년 9월 12일, OO생명보험(주)(이하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자신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 보험기간은 10년, 납입기간 및 주기는 일시납, 보험형태는 즉시상속형, 연금지급주기는 1개월로 하는 즉시연금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금리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최저 2.5%가 보장된다는 피신청인의 설명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분쟁조정 신청 시점에는 월 136만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 받음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구조에 따라 연금월액을 산출하여 지급하였고, 신청인의 주장은 상품구조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최소 월 208만원 이상의 생존연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함



즉시연금(만기/상속형)에서 최저보증이율 적용의 적정성

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 즉시연금(만기/상속형) 보험계약에서 지급되고 있는 생존연금이 과연 약관에서 정한 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함
- 이 사건 연금보험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산출방법서와 상품설명서 등을 종합하면 ‘연금계약 적립액’을 연금개시 전에는 연금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해 적립한 금액으로, 연금개시 후에는 위 연금계약 순보험료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피신청인의 주장은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피신청인은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적립액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되, 최초의 연금계약 적립액은 순보험료가 되도록 하여야 함 (2017.11.14. 조정번호 제2017-17호)

3.2 질병보험 등의 활용

□ 노후실손의료보험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75~80세까지 확대한 고령자 전용 상품

□ 치매와 간병보험

- 연령이 증가하면서 치매유병률이 증가 추세이며 진료비로 인해 가족의 간병 부담이 큼
- 치매보험(장기간병보험, 실버보험)은 치매 진단 후 90일간 상태가 지속될 시 지급
- 중증치매, 경증치매에 따라 상품 보장 내용 상이

□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 제도로 분담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 대상



4

마무리 퀴즈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Quiz 1.

X

**출생 연도마다 다르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퇴직연금 가입 시 본인이
자산운용방법 등을 결정하여
발생수익이나 손실에
책임이 있는 것은 DB형이다.**

Quiz 2.

X

운용에 따른 손익의 책임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DC형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원금 손실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Quiz 3.

X

연금저축,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 가능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원금 손실 가능

□ 실제 연금저축 관련 사례

40대 중반 직장인 A씨

A씨는 2013년에 은퇴를 준비할 나이가 되어 절세를 위한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함

그런데 2014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를 최대 300만원 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말정산 시 각각 40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됨

연봉 6,000만원의 직장인 B씨와 연봉 4,000만원의 교사 C씨는 맞벌이 부부

두 사람은 각각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B씨는 400만원, C씨는 100만원을 납입하여 부부 합산 총 500만원을 납입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들은 2015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추가 세제혜택 10만원을 놓치게 됨

□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적립 시점)

1.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2.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유리!
3. 연간 세액공제한도 초과납입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신청 가능!





감사합니다

